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9강, 요한복음 10장과 율법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9회기, 요한복음 10장, 율법입니다.

글쎄요, 지난 테이프에서 우리는 왕권부터 고대 동양의 석방 관행, 즉 빛 탕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서의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 경제 시스템을 창조하신 성경까지의 순서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에서 가장 다작하고 중요한 왕실 칭호 중 하나인 목자(Shepherd)로 돌아가서 그것에 관한 구약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 연구에서 내가 제안한 것은 목자의 이미지가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테이프에서 제가 요한복음의 무대를 두 가지 방법으로 마련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요한의 신학적 의제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과 메시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특별한 의미의 치유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9장을 완전히 그 내용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구약의 배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이 구약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거의 보편적으로 예수께서 목자로서의 자신과 양으로서의 그의 백성에 대해 창조하신 일종의 강론인 것처럼 해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다양한 구성 요소는 양과 목자의 목가적 이미지에 적합합니다. 30년 전에 나는 이 장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썼고, 30년 전에 그것을 했을 때 나는 현재의 해석을 위해 광야에서 울부짖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나의 이해가 중동 지역에서 더욱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이해일까요? 이 구절을 일반적인 해석대로 해석한다면, 이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러 왔다는 것을 주로 청중에게 가르치셨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본문에 대한 구원론적, 구원론적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나의 이해는 그것이 대체로 기독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나의 이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임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서문적인 생각을 한 다음 요한복음 10장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왕 같은 메시아 외에는 그 누구도 목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목자의 형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청중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체 장을 읽지 않을 것이다. I am 시리즈입니다. 7장과 8장에서는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섯 명의 왕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 이집트 사회에서는 파라오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이한 왕실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리라. 그런데 한 구절을 놓쳤습니다: 12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샅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의 주인도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빼앗고 헤치느니라. 그는 샅꾼이고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도망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신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 전체를 통해 주요 주제로 보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서 더 나아가 드러난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것은 성경을 하나로 묶는 주요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흥미로운 표현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샅꾼은 목자가 아니고 주인은 늑대를 본다고 하십니다. 와서 양을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목가적인 양치기, 푸른 목초지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것 중 하나는 그 이미지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미지의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샅꾼이라고 말하다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려 두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일찍 수직 전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늑대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늑대를 성경 구절의 페이지로 수직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음, 이것은 같은 종의 동물이지만 같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유럽과 미국에서 알고 있는 늑대는 몸무게가 60, 70파운드나 되는 큰 동물입니다. 그는 인간을 죽일 수 있고 물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잭 런던은 그의 거대한 이빨과 사악한 성격으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글쎄, 그 늑대와 팔레스타인 늑대에게서는 아무것도 더 이상 제거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늑대는 단독생활을 하는 동물이며 무게는 20파운드 정도 나갑니다.

큰 동물이에요. 미국의 수컷 코요테 크기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외로운 동물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구절에서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의 청중은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양떼를 치는 여섯 살짜리 팔레스타인 소녀가 팔레스타인 늑대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늑대는 소녀를 보고 뒤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사악한 동물이 아닙니다.

무리 지어 달리지 않으며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글썄요, 선한 목자가 실제로 목자인 것처럼 늑대도 실제 늑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TV에서 동물 쇼를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를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썄요, 저는 그 모든 동물 쇼와 그들이 제 아내를 짜증나게 했을 때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의 본질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큰 고양이 쇼를 볼 때, 큰 고양이든 작은 고양이든 고양이는 잡히면 죽이고 먹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늑대나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동물이 죽기도 전에 먹기 시작합니다.

사실, 동물이 죽는 것은 그들이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쇼크로 사망합니다. 그러나 개과의 이상한 점 중 하나는 그가 그렇게 죽일 뿐 아니라 고양이와 달리 개는 즐거움을 위해 반복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즐거움을 위해 계속해서 살인을 할 것입니다. 샅꾼인 목자가 양 떼를 팔레스타인 늑대에게 버린다면, 그는 죽이는 기쁨을 위해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끝내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늑대가 양을 모두 죽일 것이기 때문에 양을 늑대에게 버린다는 부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나쁜 목자를 샅꾼에 비하셨습니다. 글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알고 있으며, 남은 시간 동안 모세의 율법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세는 목양에 관한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양은 중요한 직업이었고, 그 직업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직한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자가 양을 시장에 팔고 나서 그의 주인인 양의 주인에게 그 양이 야생 동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었다는 증거로 양의 귀와 발, 발굽을 내놓아야 하고, 그냥 팔지는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글쎄요, 만약 이미지에 나오는 고용인이 도망간다면,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구절의 구성 부분을 보면 문자 그대로 목회적 배경에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셨음이 상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즉 선한 목자는 다른 것이고, 늑대는 다른 것이고, 고용인은 다른 것이고, 그것들은 단순히 다른 이야기에 대한 은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런데 늑대는 누구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사탄일 수도 있고, 헤롯왕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고용인 예수는 헤로데 왕 중 한 명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으로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내가 진짜 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왕은 자신의 양을 보호하지 않고 대신 버리는 왕이다. 이제 나는 요한복음 주석을 쓴 매우 유명한 기독교 주석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논문을 쓸 때 그는 내가 방금 당신에게 말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책을 마치 목자와 그의 양 떼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읽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나는 또한 이 사람 밑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나의 학생 중 한 사람이 그의 교실에서 이것은 실제로 왕권에 관한 것이며 예수께서 실제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는 반대 언급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 구약에서 목자라는 칭호는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구절을 볼 때, 이 말로 인해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왜 그의 말을 듣느냐?”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지요?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를 이전 장으로 데려가는지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 있었습니다.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다니 시니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모여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느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세요.

즉,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그분이 기능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양목자 이야기로 이해될 수도 있고, 에스겔 34장에서 설교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2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들은 나를 증거한다. 내가 말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선한 목자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임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사이를 분명히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을 넘어설 준비를 하면서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의 결과로 요한이 자신의 복음을 절정에 이르게 한다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음성을 들어도 알지 못하되 나는 내 양을 아노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 34장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34장의 메시지는 새 다윗과 야벳이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이것이 요한의 신학적 목표를 절정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는 이 모든 장을 통해 단지 메시야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시며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전반적인 신학적 목표에 어떤지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강좌에서 하는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진실에 대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목양은 신약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제외하고는 신약성경의 어떤 기독교 지도자도 목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몇몇 목사, 심판, 교사를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지도자를 목자로 부르는 곳은 그곳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약에서 목자가 하나님을 위해 예비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목자는 예수님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신약성경에서 지도자들을 가끔 하위 목자로 언급한다는 사실이 목회 사역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함축하는 바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진술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목사인 우리가 아랫목자라면,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목회 사역도 같은 종류의 용어로 구현됩니다. 아랫목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공급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사명이며, 그분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개념이 신약성서 전체를 통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스냅 사진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철장으로 목양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묘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경 개념을 떠나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하나로 묶는 무언가를 찾고 싶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개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 개념, 아랫목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관통하는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어를 바꾸고 지금 우리가 기록하는 위치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것은 왕권에서 법으로 다소 갑작스럽고 극적인 전환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모세의 율법이 함무라비의 율법과 얼마나 유사한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확실히 복사된 문서는 아니지만 이 두 법칙 사이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유사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있는 중죄를 살펴보고 함무라비 법에 나오는 중죄를 보십시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계집애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와인 한 병을 훔쳐라, 죽음. 무언가를 훔치고, 기간, 죽음.

허위재산신고, 분실물, 사망허위신고. 즉,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당신은 사람을 죽였고 모든 것에 대해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글썬, 우리가 이 두 문서를 보고 비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신약성서에 비해 중범죄의 수가 훨씬 적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282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을 다르게 계산했기 때문에 611개 또는 613개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함무라비 법의 2.3배에 해당하는 법이 있지만, 함무라비에는 사형에 관한 범죄가 4배나 많습니다. 이는 모세의 법전이 더 크더라도 중범죄의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 율법을 비교해 보면, 모세 법전은 대체로 종교법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서 처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은 죄이기 때문에 처형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민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작동하는 방식과 함무라비가 작성한 율법이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함무라비 법은 민법이다. 모세의 법전은 분명히 종교적인 율법입니다. 셋째, 이 두 법전의 철학 사이에는 중요한 비교가 있다.

법전은 흥미롭고 동일한 상황을 공유합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질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에도 동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질투의 법칙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성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한다면, 그는 고발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법률에는 성적 불성실 문제를 다루는 동일한 법률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한 여성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신부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여자의 손과 발을 묶어 강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살아남는다면 그녀는 결백하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의 신학은 강이 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이 그녀를 삼키면 그녀는 유죄입니다.

반면에 신이 그녀를 삼키지 않는다면 그녀는 결백하다. 즉, 사실상 시련에 의한 재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시련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함무라비의 법전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녀가 결백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녀는 유죄로 추정됩니다. 모세 율법에서 율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그녀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녀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성막 안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민 5장). 그곳 성막에서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맹세합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성막 바닥의 흙 중 얼마를 취하여 물에 담그고 그 여자는 그 물을 그릇에 담아 마신다.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녀는 결백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허벅지가 부풀어 오른다면 그녀는 유죄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해 보면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모세의 법전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그녀가 무죄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신성한 침전물을 마시고,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정상적인 일) 그녀는 결백합니다. 시련에 의한 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유죄를 보여주시지 않는 한 그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두 법전은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법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즉, 하나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이고, 다른 하나는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입니다. 내 수업 노트에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쁘지 않습니까? 이 섹션에서는 두 법률 코드의 유사한 아이디어를 비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문화 위가 아니라 문화 안에서 계시를 주셨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제가 이 두 코드 사이에 가지고 있는 유사점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상당히 인상적인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추가적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샤마시 신 앞에 있는 함무라비의 사진이 있는데, 샤마시는 그에게 아마도 어떤 종류의 스타일러스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무라비 법전인 비석의 윗부분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나보다 키가 더 크다. 약 6피트 정도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다양한 법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법전은 수메르인 우르남무(Ur-Nammu)이며, 그 역사는 기원전 21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음으로 오래된 법률 코드는 Lippit-Ishtar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센(Isen)의 왕이었고 역시 수메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800년에 우리는 물론 왕을 대신하여 법전을 작성했지만 그것이 어떤 왕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 발견된 도시이기 때문에 Eshnunna라고 불립니다. 그 위대한 법전 중 마지막은 1750년경의 함무라비인데, 그 중 많은 사본과 하나의 주요 비석, 그리고 후기에 내려오는 수많은 명판이 있는데, 이 법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법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현장에 가져오는 코드는 게임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모세의 법전은 1450년쯤인데, 이는 게임 후반부인 함무라비 이후 300년 이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를 살펴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그 한계가 세 가지입니다. 두 문서 모두 종교문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는 자신이 샤마쉬(Shammash) 신으로부터 암호를 받았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함무라비의 법전은 우리가 도덕적인 것으로 묘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패션과는 달리, 그 시대의 기준에 비하면 매우 친절하다고 분류할 수 있는 모세의 법전과는 다르다.

둘째, 함무라비 법전은 판례법이라는 점에서 모세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과 다르다. 모든 문단은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 슈마 아빌룸(Shumavilum)"이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함무라비가 판례 상황의 개별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이를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무라비가 법전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함무라비가 내린 282가지 결정의 목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법률 코드가 아닙니다.

모세의 법전에는 판례법이 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멋진 이름이 있습니다. 아포딕틱(apodictic)이라고 합니다.

부정법은 명제법이다. 명령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글쎄요, 흥미롭게도 고대 근동에는 명제법이라는 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률은 판례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대체로 명제적이며 위반이 발생할 수 있기 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윤리적 진술을 합니다.

이는 범죄 이전의 진술이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다시 한번 더 윤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처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종교적일 수 있지만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함무라비 법전은 전적으로 판례법인 반면, 모세는 대부분 묵언법이거나 명제법이다.

셋째, 함무라비 법전은 핵심부터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네 개의 다른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에서의 지위에는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목록의 맨 위에는 아빌룸이 있었습니다. avilum 아래에는 muskeinum이라는 작은 사회적 범주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노예를 위한 세 번째 범주인 바르둠(vardum)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범주는 여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고유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한 자유 남성인 아빌룸(avilum)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노예나 여성의 경우와는 다른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근본적으로 계급이 분열된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전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사람이 언약의 동등한 파트너라는 점에서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은 매우 달랐습니다.

남자라면 모두 형제였고, 여자라면 자매였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법에 관한 현상에 나의 관심을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제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여기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세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을 비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히브리어 성경의 율법이 어떻게 왕권에 닮고 기초를 두고 있는지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법이 많은 문화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왕들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든 법이고, 그 후의 지도자들이 더 많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의 우리 모두가 그 법을 승인함으로써 비준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법을 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함무라비는 샤마쉬로부터 법을 받는 것으로 묘사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왕권의 기원에 속하는 학문분야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다면 나와 함께 신명기 17장을 펴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제가 이스라엘 헌법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헌법에는 신명기 16장부터 17장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재판관과 행정관, 왕과 레위인, 선지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16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이 장에는 네 가지 주요 헌법 범주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판관이요, 왕이요, 레위인이요, 선지자이니라.

이것이 국가 헌법이다.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정부 기관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스라엘 세계와 얼마나 유사한지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글썄, 그들의 이웃에는 성직자가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글썄요, 그들의 이웃에는 선지자가 없었지만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글썄, 그들의 이웃에는 판사가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웃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위해 왕들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 사이의 왕권의 차이를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반박하려는 것은 사무엘상 8장의 오해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요청에 대해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논리의 규칙을 따릅니다. 저는 대학에서 논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 일이었습니다.

논리의 법칙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저는 왕권은 단지 직분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이지도 부도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을 도덕적으로 또는 부도덕하게 만드는 것은 사무실의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의하신 것은 직분이었지만 다른 모든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7장 14절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며 이르기를 나도 사방 모든 나라와 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리라 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 하셨느니라 관찮은? 그래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신명기 17장은 사무엘상 8장보다 400년 전입니다. 사무엘상 8장이 왕을 구하는 것은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왕을 구할 때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이니라 관찮은?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요청의 평등주의적 성격에 주목해 보세요. 당신의 왕은 당신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 중 하나입니다. 용어를 보고, 왕이 될 형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특별한 지위를 취하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론은 왕이 당신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택하실 것이며 그는 너의 형제가 될 것이다.

둘째, 동포가 아닌 타국인을 너희 위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고 그냥 첫 번째네요. 그 사람은 형제임에 틀림없어요. 두 번째는 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수업의 이 정도 규모의 청중 중에는 왜 그가 말을 곱하면 안 되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답은 말은 무언가에 대한 은유라는 것입니다. 말은 군사력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가 말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그가 군국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 뿐입니다.

먼저 그는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는 군국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말을 늘려서도 안 됩니다. 셋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아내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은유입니다. 이는 하렘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다른 문화나 다른 나라의 여성과 결혼할 때 군사 동맹을 맺는 방법이었던 고대 관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모두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동맹을 맺을 때, 내 생각엔 모든 경우에 당신의 계약 파트너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그 동맹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솔로몬이 대규모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이는 그가 국제적인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과 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왕을 늘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글썄, 그것도 은유입니다.

즉, 왕은 물질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네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그는 외국인이 아니어야 하고, 군국주의자가 아니어야 하며, 국제주의자가 아니어야 하고, 물질주의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를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만든 네 가지 이유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위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솔로몬, 아니면 최소한 마지막 3명.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썄,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두루마리에 기록할지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율례와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리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중에서 왕위에 앉아 장구하리라. 친구 여러분, 이 문서는 놀라운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을 만드는 것은 율법에 대한 그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복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율법을 계시하셨으며, 그 율법의 사본을 만들고 그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 되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왕의 책임입니다. 자,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법과 질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대체로 종교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신 방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하시고, 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의 모든 왕은 율법의 사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든지 율법의 사본이든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관계하시는 방식은 율법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습니까? 법 전체. 법과 법 준수의 위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이고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라는 결론을 어떻게든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는 성약의 기록된 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미국에서 시민이 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당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글썄요, 고대 세계의 법은 종교적인 법이고 언약의 표였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며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전통에서 전개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법을 부여할 공식 국가가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첫 부부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너는 일하든지 동산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당신은 정원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정원이겠지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미 나아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전통을 믿는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시든, 신약의 왕이신 예수이시든,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입니다.

비례적으로 보면 구약성서의 모세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더 많은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약성서에는 2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의 크기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600을 주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비례적으로 첫 언약보다 새 언약에 더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법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 앞에 있는 단어도 보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정말 나쁜 영어 대본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난합니다. 영어 단어 law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앞에 단어를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약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셨고, 역대 왕들마다 모세 율법의 사본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왕의 책임이 극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신약성서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항상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은혜 사이의 잘못된 대조입니다.

법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면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책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 판단으로는 대체로, 아마도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은 성약을 맺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붙이고 있는 개념은 왕권의 개념이고, 왕권은 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신약성서에 들어갈 때 진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위대한 왕이신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기어를 상당히 극적으로 바꿀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왕권에 대한 개념을 버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 전체에 응집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왕권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의 입에 강렬한 맛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곧 여기에서 페이지를 이동하고 수업의 다음 섹션에서 새로운 주제 영역으로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9회기, 요한복음 10장, 율법입니다.